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2호

발행일 : 2018 .2 .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안말사극 더 가까이 나아가
보려합니다

<이달의 간증>

-김진숙 집사-



어느 날 갑자기 김미진 집사님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특 던지듯 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간증 하나 쓰셔야죠?”

장난인 듯 장난 아니듯 한 말 한마디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내가 간증을?”

그 뒤로 주일에 얼굴만 보이면 손을 내미시던 집사님에게

“간증 할 만 한게 없는데요”

했더니 돌아오는 한마디

“진숙 집사님이 간증거리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한 달을 고민해 봤지만 별로 간증이라 할 만 한 일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주시는 헌금 100원을 받아 들고 사촌언니, 오빠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때로는 사회생활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생활 속의 문제라는 핑계에 숨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은 항상 있었고 어찌 하여도 주님을 떠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직업 특성상 주일에 쉴 수 없어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을 갈망했는데 그 생각으로 힘들어 할 때 즈음에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 나를 당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당진에 내려와 순복음교회인 우리교회에 나오면서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교회 일을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젊어서 었을까요?

그때에는 힘든 줄 모르고 정말 열심을 다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돌연 권사님이신 엄마가 교회를 떠나시면서 하나씩 하던 일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자꾸만 어긋나는 분위기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길고 긴 방학이 시작되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의 잡아주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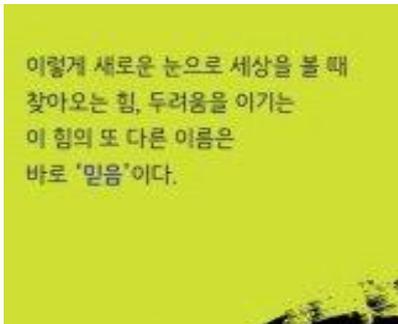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고 정말 이제는 갈 때 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 때 쫘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주일예배만 참석해 보려 했는데 그게 또 내 마음 같지 않게 주일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게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낯선 교회에 오셔서 적응을 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시던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께서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하셔야지요?”

하시는데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적응을 못하고 헤매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갔네요. 이제 엄마도 새롭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한 2018년도가 시작되었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적응기간을 가졌으니 이제 올 한 해 동안 뭔가 천천히 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한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 보려합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딸 부잣집 원재옥 권사님네 둘째 딸 유하은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것, 감동 받은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컸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치등부 때는 소리엘 성가대를 했고 연극 할 때는 주인공을 했고, 학생회에 들어와서는 구역장과 임원을 하였습니다. 헌신예배나 주일저녁예배 때는 항상 준비찬양을 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유치부 보조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자라며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 찬양 되게 잘하나봐,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될거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인걸?’ 대학생이 되고 유치부 정교사로 임명을 받고 나름 더 열심히 제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진에 있을 때와 타지에 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드려야할 유치부예배에 몇 번씩 못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교사라는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사직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쪽엔 ‘내가 나가면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 할꺼야! 이것들은 나만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나를 다시 부르시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찾지 않으실 뿐더러 유치부의 아이들은 더 잘 성장하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이 세워져 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배 역시 잘 드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강박한 마음은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없어도 잘 드리네??? 뭐야!!!’ 라는 베베 꼬인 마음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전도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려고 주일 대예배 때 준비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또한 옛날과 같이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 세워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때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사람이 많은 토요일에 일을 하다 보니 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자주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찬양에 못 서게 되기를 몇 번...

그러다보니 이 자리 또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준비찬양 자리에 또 빈자리가 생겼지만 저는 그 자리가 안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몇 주 후 그 자리에 저보다 더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 내 자리였는데... 나 말고도 채울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씁쓸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와중에 토요일 청년 예배 설교말씀 중에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유다 족속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시키셨지만 에스더가 거부 하자 그의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어?’ 라는 사람의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결국 제 기분과 세상에 맞추어 주님의 일을 내려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에스더에게 말하신 것처럼 저 말고도 제가 했던 자리를 채울 일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낀 것은 2017년,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회 구역장이라는 한가지의 일만 맡았습니다. 위에 일을 겪으며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는 나름대로 구역장 역할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부족하고 아쉽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7년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회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제게 맡겨진 이 소중한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잘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알아가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며 올인하시는 집사님의 신앙 모습에
도저히 이섭니다. 늘 한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알아가기

-장명희 집사-

1. 조집사님과 집사님 두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천안에서 직장생활 할 때였어요. 동료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분은 못 나가고 제가 대신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 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조집사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보고 무서운 인상이라고 말했으나, 제 눈에는 너무 귀엽게 보였어요. 흰 목티에 양복 자켓을 입고 나왔던 그때의 그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 아들부부랑 사는 느낌은 어떠세요? 분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가정에 새 사람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분가 시켜 줄 겁니다.

그때엔 경환이네 부부도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3. 며느리가 해 준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인지요?

며느리가 해 준 음식이 지금까지 한가지 밖에 없어요^^

밀폐유나베라 라는 음식인데요~ 매우 고급지고 맛있었습니다.

4. 조경환 성도님이 결혼하겠다고 말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혜주가 제게 먼저 말했는데요~ 저에 삶을 닮을까 걱정되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 손녀를 위한 기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이들에게 존귀한 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배생활, 십의일조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6. 자기 자랑해 주세요.

저는 청소도 잘하구요. 긍정적이구요. 큰 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지요.

7. 24년만에 아기를 다시 키우게 되셨는데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그렇죠. 경환이때랑 많이 다르네요.

경환이는 어릴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한 상황이 그랬거든요. 교회에 경환이 또래 아이들이 모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녀는 신앙으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8. 집사님의 신앙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세요?

저는 제게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 뿐이네요.

9. 순복음교회 최고의 찬양자이신 집사님~ 집사님 친정 식구들은 모두 노래를 잘하시나요?

아니요~^^ 동생도 음치구요. 엄마도 노래 잘 못하세요.

10. 맡은 일이 많으신데요. 그중 가장 마음을 쓰며 신경 쓰시는 주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힘들 때 회복의 도구로 주님이 쓰신 것이 찬양과 율동이었어요.

이 사명이 저를 살게 합니다.

11. 구역장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요. 좋은 구역원 어려운 구역원을 말씀 해 주세요.

구역장 일이라는 것은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외로울 틈도 없게 전화 해 주고 챙겨주는 구역식구가 너무 고마웠구요.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안보이는 구역식구가 있을 때 마음이 아프죠.

12. 많은 후배 성도님들이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으신데요.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거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13. 인생 중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은 언제였어요?

언제인지는 가물가물 한데요~ 어느 날 문득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고맙다구요. 힘들게 살아온 삶이라서 그런지 조집사의 그 말이 기억에 남
아요.

14. 집사님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말씀은 몇장 몇절 인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5. 에스더에서 마리아로 소속기관이 바뀌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새로워요. 그리고 열정적인 회장님! 열심히 따라 가겠습니다.

16. 우리 모두는 목회자분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협력자가 되시겠어요?

목사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가는 협력자
입니다.

감사릴레이

정정희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은혜 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차갑게 내리지만 살포시 내려앉은 하얀 눈 속에서 봄을 향하여 새싹을 돋우고
있는 생명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 승리하겠습니다. 저
와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좋아하며 되새기는 성구 하나 올릴게요.. 같은 은혜 받기 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2절)**

다음 릴레이 하실분 : 김학순 권찬님

칭찬하는 습습이!

김병관 김연훈 조경환 유하은 장지은

우리 교회 셋별 유치부 시절부터 유초등부 학생회를 거쳐 어엿한 청년이 될 때까지 동거 동락한 이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참 잘 자랐고 잘 지내온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선 지금도 웃으시며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성장해 주어서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연훈 청년은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축구부 회장 등을 맡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관 청년은 며칠 전 군을 전역했지요~ 군 복무 기간 중에도 휴가 나올 때마다 자신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드럼 소리 기억하시지요? 심장을 울리며 우리의 찬양을 더욱 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사역이지요~ 엄마 이종희 집사님을 닮아 정말 다재다능한 청년입니다.

경환 성도는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됩니다. 좀 이른 듯 하지만 가장으로써 충분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은이 청년은 물리치료를 꿈꾸며 도전해 가는 야무진 청년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행사에 열심 있는 봉사와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은 청년은 올해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미술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때에 꼭 필요한 그곳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 연훈, 하은, 지은 청년은 밀알 청년회 구역장으로도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참 많은 칭찬이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참 많은 칭찬과 격려로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들로 쓰임 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 속에서 믿음의 우정을 지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소개>

밀알 청년회 은총구역

새해 각오!

나희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자녀 되겠습니다.

김병관

성경도 많이 읽고 학교생활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생활하겠습니다.

이민애

열매 맺기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강예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하며 살겠습니다.

김성광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저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김성령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로 열매 맺겠습니다.

장지은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되어 헌신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City tour를 하면서.....

학.청 연합 동계수련회를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City tour를 계획하고 하게 되었던 동기는 당진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지역을 보여주므로 내가 속한 지역만 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더 넓고 넓은 세계를 보며 큰 꿈을 꾸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획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년전 하계수련회 때 처음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의 청소년 비전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가 학생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City tour로서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당진, 수원, 인천, 그리고 이번에 군산까지 5개 도시의 지역을 투어하며 그 지역의 특징과 문화와 역사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지역을 조사하고 답사하여 파악된 코스를 따라 4팀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주어진 코스를 따라 짧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정도의 시간을 팀원이 하나가 되어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미션을 수행하며 그 지역을 tour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서로가 경험이 없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가벼이 생각하고 불편한 신발에 얇디 얇은 흠바지 차림에 대도시를 누비며



추위 별별 떨기도 하고, 진행부에 지시도 무시한채 코스에서 이탈되어 연락 두절되어 애타게? 찾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번 군산투어 때는 다른 어느 해보다 날이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였음에도 수련생들의 모습에는 어느 누구 하나 짜증이나 투정하는 모습이 아닌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한 행복해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주님의 사람이 넘치는 투어의 일정이었습니다.

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너무도 멋지게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도 감사도 넘쳐났습니다.

너무 추워 어린 친구들에게 “이번에 어땀어?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라는 질문에 “힘들기는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을 보며 한해 두해를 거듭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도 잘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에 “참 잘하였다 참 잘했어” 라고 교사들은 교사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된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 전하는 변화되고 거듭난 학생과 청년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며,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고정시키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과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지역 추천 설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울릉도 제주도 부산 춘천 등 다양한 지역을 추천하였으나 2019년의 City tour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큰 꿈을 키우게 해줄 또 다른 지역에서 City tour가 기대됩니다.

학생회 교사 구옥순

축구부 동계 훈련



학.청.동.계.수.련.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장 15-16절)

노인복지 봉사활동

당진실버하우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벤전 4장 10절말씀.-

어느 할머니의 국수집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믿었던 아내마저도 제 곁을 떠나 버렸고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었을까요……. 용산역 앞에 늘어진 식당들을 돌며 밥 한 술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군요. 어느 곳은 두들겨 패기도 했고, 또 어느 곳은 저를 쫓기 위해 개까지 풀었습니다.

독한 마음에 밤에 휘발유를 뿌려 불 질러 버리겠다는 생각에 한 집 한 집 X자를 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한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다른 가게들과 달랐습니다. 저의 남루한 몸골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내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인지 정말 허겁지겁 국수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제 그릇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행색을 보고 이러는구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른 순간! 제 눈앞에 새 국수 그릇이 놓여 있더군요. 이게 웬 황재냐 하고 새 국수도 입에 털어 넣었죠. 배가 좀 부르자 돈이 없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 주인 할머니가 다른 국수를 삶는 틈을 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달음박질치고 있는데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펄펄 울었습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절하게 맞아 주시고 말없이 한 그릇을 더 내어 주시고…….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는 저에게 오히려 다칠까 걱정을 하신 거죠.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그리고 걱정 어린 한마디 말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됐고 먼 나라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훗날 방송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모습이 마치 옛날 본인 모습 같으셨나 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면서 4남매를 홀로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연탄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죽음 대신 그 연탄불에 다시마 물을 우려내 국수집을 차리자 결심하셨고 덕분에 자식들을 잘 키우셨다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의 값은 2,500원이었지만 그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 퍼온글 -

아름다운 이야기

한 중년 남성이 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노숙자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누군가 그 노숙자 앞에 지폐를 놓기 시작했고, 제법 많은 돈이 쌓여갔다.

마침 오갈 곳 없던 노숙자였기 때문에 곧바로 근처 대형 마트로 가서 며칠 먹고 쓸 수 있는 물건과 음식을 양손 한가득 들고 나왔다.

다시 또 그 의자로 가서 앉았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젊은 남자가 눈물을 보이며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배가 고프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내 딸 아이가 많이 아파서 당장 약을 사서 먹여야 하는데.....'

'여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부탁이 잘 들어지지 않아 보였다.

중년의 노숙자는 전화통화를 하는 젊은 남자가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겹옷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쇼핑한 두 봉투를 다시 안아들고 이내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그리고 20분 뒤 노숙자는 다시 돌아왔고 젊은 남자는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노숙자인 중년 남성이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금방 산 물건들을 모두 환불했어요. 베개, 이불, 그리고 옷이죠. 지금은 나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다시 돈으로 바꿔왔어요. 저보다 돈이 더 필요하실 것 같네요.

딸을 잘 돌봐주세요”

노숙자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이 노숙자는 어제 이후 밥도 못 먹었지만 딸을 치료하라고 돈을 주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 만약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라반(Laban)

뜻 : 흰빛

1) 브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라비요 야곱의 외숙이며 장인이다(창24:15, 28:5, 29:21-30).

2) 하란에 거하며 많은 양떼를 가졌으나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교활하여 자기 사위 야곱을 열번이나 속여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야곱에게 많은 손해를 보았다(창 30:-31:).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버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육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과 축복권에서 벗어난 이방인 아닌 이방인의 냄새를 풍기는 인물이다.

그는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으로서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약대에 보물을 싣고 밧단 아람에 있는 친족 나홀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라반은 그로부터 금은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받아 여동생 리브가를 기꺼이 그에게 인계한다. 이것을 보아 물질에 탐욕적인 사람이란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여 재산증식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으며,

심지어 품삯의 대가로 야곱에게 좀처럼 생산되지 않는 아름다운 것과 점이 있는 양과 소의 새끼들만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약속받은 자였기에 가축들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점이 있고 아름다운 것만 생산했으며, 반면 라반의 가축은 생산을 못하게 되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불신앙+탐욕=라반], [계약+은총=야곱][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신28:2-3).

성경 숨은그림찾기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시고로 그들이 성 쌓기
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숨은그림 : 은행잎, 삼각자, 성냥, 장도리, 팽이)

* 나의 믿음생활은?

- essay.146 -



*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냐이다!

시사용어 Briefing

■ 넋지효과

넋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A라는 병원에서 수술에 동의하는 환자들을 위해 사망확률이 10%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존확률이 90%라고 말하게 되면 수술에 동의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끄는 힘. 이러한 효과가 넋지효과다.

■ 네덜란드병

경제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하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자원에만 의존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나라들이 이후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물가상승) 환율하락으로 인해 제조업들의 경쟁력은 밑바닥을 치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네덜란드병이라고 한다. 네덜란드가 이러한 이유로 경제가 침체를 맞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자원이 풍부한 것은 오히려 경제발전의 저해의 요소가 된다는 일종의 경고인 것이다.

■ 파레토법칙

파레토법칙이란, 전체 원인의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빌프레도 파레토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20:8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파레토법칙'은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위 20%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인구 20%가 전체 자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20%인재가 80% 성과를 올린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앵커 테넌트

앵커 테넌트란 상업용 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의 이미지, 테마 등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매장을 말한다. 가장 집객 능력이 큰 상점이기도 하다. 앵커 테넌트는 자신이 입주한 쇼핑몰이나 상가 등에 활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 아예 주변 상업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인 인천국제 공항에 여객터미널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로 나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항공으로 현재 4개의 항공사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은 코드쉐어(항공사간의 좌석공유)의 경우 실제 탑승하는 항공사의 항공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행하는 항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미널을 잘못 찾아야 가까운 시간을 낭비 할 수도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새로운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셀프존 카운터입니다. 셀프존 카운터는 직접 티켓 발권부터 셀프 수화물 드롭백 등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여러 편의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셀프 체크인 할 수 있는 원형 검색기, 그리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걸어가면서 얼굴을 인식 하는 워크 시루 시스템까지 첨단기술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편리해진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리무진, 지하철, KTX등 각각 찾아 가서 타야 했지만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는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비행기 탑승전 몸이 아프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겨울옷을 맡길 수 있는 코트룸과 구두 수선실도 있다고 하니 나에게 맞는 편의시설을 찾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들을 이용해 해외로 나아가갈 때 땅 밟기를 하며 조금 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기관장헌신예배 / 2월 4일 저녁예배
2. 특별새벽기도회 / 2월 5일~9일
3. 청년회헌신예배 / 2월 11일 오후 5시
4. 축구부 스페인TOUR / 2월 12일~24일(12박13일)
6개도시(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마드리드 세고비아
코르도바 세비아)
5. 교회웃놀이 / 2월 25일 오후2시
6. 기관장단합대회 / 2월 27일 오후7시 쿠우쿠우 당진점

◎ 공지사항

1. 2월 생활실천표어 / 바라보는 곳을 네게 주리라
2. 2월 신앙서적 / 하나님 편에 서라

◎ 이달의 교우소식

1. 유하은청년 /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
2. 박혜주성도 / 출산 2월 27일경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